

# 화룡, 겨울시즌 대비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 풍성한 즐거움 선사해 겨울철 관광시장에 활력 주입



겨울관광시즌을 맞으며 화룡시는 '장백산 전하설, 색다른 화룡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는 빙상 스포츠, 눈썰매, 민속체험, 지역 음식 맛보기 등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을 맞게 된다.

겨울관광시즌을 맞으며 화룡시는 '장백산 전하설, 색다른 화룡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는 빙상 스포츠, 눈썰매, 민속체험, 지역 음식 맛보기 등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을 맞게 된다.

겨울관광시즌을 맞으며 화룡시는 '장백산 전하설, 색다른 화룡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는 빙상 스포츠, 눈썰매, 민속체험, 지역 음식 맛보기 등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을 맞게 된다.

울철 관광명소를 조성하였는데 화룡 선봉스키장은 12월 하순 시범 운영을 목표로 총 길이 1,225미터의 초급 슬로프를 개장하였고 청룡어업공경구에서는 짜릿한 얼음낚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낚시터를 개설하였으며 연안촌, 진달래로천 등 중점 향촌관광지에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겨울눈발 겨울놀이, 눈동굴카페, 눈밭 모터싸리 등 다양한 겨울철 레저활동을 마련한다.

이 밖에 화룡시는 올해 숙박, 교통, 쇼핑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더욱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채의 독특한 삼각형 주택을 새로 짓고 선봉민박을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변경경제협작구역 남무호텔과 승선진 군향호텔이 새롭게 문을 열어 다양한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며 연안촌 비행민박단지를 활성화하여 농촌 체험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화룡시통합매체중심

## 연길관광설명회 청도서



14일, 연길과 청도의 문화관광, 경제, 사회 제반 사업의 깊이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길관광설명회가 청도에서 있었다.

축사에서 연길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4년 겨울철 관광시즌이 다가오면서 제 12회 연길국제빙설관광축제도 곧 개막된다. 청도의 관광객들과 대학생들이 연길에 와 빙설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빙설운동의 재미를 느끼며 조선족 민속문화의 매력을 체험하고 전통적인 조선족 음식을 맛볼 것을 추천한다. 청도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상호 보내고 자원을 공유하고 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함께 탐색하며 관광을 다리로 삼아 두곳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두곳의 관광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기를 희망한다.

청도시정부 관계자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도와 연길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 차이가 선명하다. 두 지역은 서로 관광목적적이고 관광객들은 교류를 통해 부동한 풍경,

인문을 느끼고 관광의 의의를 풍부히 한다. 이번 설명회의 소집은 두 지역이 협력하는 다리를 놓았는바 관광시장 개발, 관광객 상호 발송, 제품 상호 선전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청도사람들이 동북과 연길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설명회에서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 사업일군이 연길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대학생들을 연길로 초청했다.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및고인류연구소 폴·라미 박사는 영상을 통해 연길의 '공룡세계'를 소개했다. 중국조선족민속 운영책임자는 중국조선족민속을 소개했다. 설명회에서 청도시문화및관광국,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이 협력 기를 협의를 체결하고 연길, 청도의 여행사 대표가 협력 기를 협의를 체결했다.

얼마전 개통한 '연길에서 만든 관광 온라인 봉사 플랫폼'이다. 관광객들은 온라인으로 연길 관광을 할 수 있다. 설명회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대학생들은 '연길행'에 등록하여 상품을 받았다. / 연길뉴스넷

### 여행수기

## 잊지 못할 구채구 여행 (2)

◎ 김향양

오매불망 그리던 구채구를 품에 안다

장족구역 탐방이 끝나자 바람으로 곧바로 관광버스에 앉아 반시간 기량 풍경구로 곧추 달려 구채구유람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청고마비의 계절에 알맞게 하늘은 높고 푸르고 청정했다. 흰구름이 두둥실 하늘 중천에 예쁘게 걸려 있었다. 드디어 9자형의 독특한 설계로 된 구채구 간판이 눈앞에 확 안겨왔다. 14킬로미터를 달려 뒤편 정동(雷汀栋)이란 곳에 도착한 후 좌우로 풍경구가 갈리는데 우리는 가이드가 알려준 대로 오른쪽 원시삼림 방향으로 달리는 차에 몸을 맡겼다. 또다시 17킬로미터를 달려 견죽해(箭竹海)에서 내려 우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견죽해, 웅묘해(熊貓海), 오화해(五花海), 진주탄(珍珠滩), 낙일랑(诺日朗), 서우해(犀牛海), 로호해(老虎海), 수정폭포(树正瀑布) 등 한곳, 한곳을 빠짐없이 체크하며 느긋하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구경을 했다. 풍경구마다 정류소가 있고 도로를 가로질러 갈 경우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하통로를 거쳐 정류소로 가게끔 해놓았고 유람차가 2분에 한번씩 수시로 여행객들을 다음 유람지로 실어다 주며 매우 편리했다.

구채구는 사천성 아바주 구채구 현 경내에 위치해있다. 장강수계 가릉강 윗천지의 한갈래 골짜기인데 해발이 1,996미터로부터 4,764미터에 이르는 아홉개 장족 촌채의 존재로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총면적은 6만여평방미터이고 세갈래의 주체골짜기가 Y형으로 분포되었으며 총 길이가 60여킬로미터에 달한다.

물은 구채구의 명물로서 호수, 샘물, 하천, 폭포가 108개의 해자(海子)를 한일체로 이어놓아 '물이 하늘에서 해메치고 새가 물속에서 날고 나무가 물속에서 자라고 물이 삼림 속에서 흐른다.'는 신기한 경관을 이곳 구채구에서만 볼 수 있다. 구채구는 원시적인 생태환경과 한점도 오염되지 않은 청신한 공기와 설산, 삼림, 호수로 신묘하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이루어 인간세상의 선경, 동화세계라고도 불리운다. 구채구는 전국 중점 풍경명승구이자 우리 나



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선정된 유람성지이다. 물속에는 200여 종류의 해조와 광물질이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여행에서 구경한 것이 바로 세갈래의 주체골짜기 가운데서 Y형에서 빠짐선으로 된 총 길이가 17킬로미터 되는 일척구(日则沟) 골짜기였다. 구채구풍경구에는 크고 작은 폭포가 열댓개나 되고 몇십개나 되는 호수와 호수군체들이 있다. 예쁜 소녀인양 잔잔하고 조용

하게 흐르는 견죽해 폭포도 좋고 시원하고 폭넓게 소리치며 흘러 내리는 낙일랑 폭포도 좋다. 바로 드라마 《서유기》의 시작 첫 장면인 손오공, 당승, 저팔계와 사오정이 천축으로 불경 가지러 가는 길에서 쉬는 장면은 바로 진주탄 폭포 아래에서 찍었던 곳이다. 진주탄 폭포는 말 그대로 하얀 진주가 폭탄처럼 하늘에서 내리치는 듯 가관이였다. 너비가 162.5미터, 높이 21미터, 제일 큰 띠차가 40미터가 되는 진주탄 폭포는 마치 타래치는 물줄

기가 마구 뿜쳐오는 듯 폭포 밑에서 서있노라면 뿜겨나오는 물방울들이 기약없이 얼굴에 시원히 내려앉아 부드러운 물마사지를 해주어 기분이 매우 상쾌하고 폐부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구채구의 정화(精华)로 꼽히는 오화해(五花海)는 동일구역의 수역에서 노란색, 옥색, 짙은 청색, 남색과 자주색, 오렌지색 등 여러 가지 물빛을 연출하는 황홀하고 신비한 호수이다. 산골짜기로 비쳐드는 해살에 산과 물과 해살이 조화를 이루어 오색찬란한 황홀경을 인류에게 선물하는 대자연이 너무 성스럽고 신비스러웠다.

산에서 내려온 우리 일행은 웃고 떠들고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저녁 식사하러 떠났다. 반시간기량 달려 규모가 아주 큰 장족식당에 들어서 저녁밥을 먹게 되었다. 장족 특색의 모우 샤브샤브가 저녁 주요 메뉴였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식당 주인과 일꾼들이 줄을 서서 열렬한 박수갈채로 우리를 맞아주며 노란색 하다(哈达)를 우리 목에 친절하게 걸어주었다.

이번 구채구 여행은 참으로 몸과 마음이 무한 힐링이 되고 치유를 받은 뜻깊고 만족스러운, 추억에 남는 여행이었다. (끝)



## '연길과 항주의 만남' - 연길관광설명회 항주서



11일, '연길과 항주의 만남' 함께 미래를 향해 '연길관광설명회'가 절강성 항주에서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연길시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전시하고 연길, 항주 두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심층적인 교류, 협력을 증진했다.

설명회에서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 책임자가 연길시의 풍부한 특색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및고인류연구소 폴·라미 박사가 쇼트클럽을 빌어 참가자들을 연길의 공룡세계로 안내했다. 중국조선족민속 운영 총책임자 주보근은 현장에서 항주시민들과 절강대학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초청을 보내면서 겨울철에 연길에서 조선족 문화를 체험하고 민족음식을 맛보며 민속풍도인정을 느껴볼 것을 추천했다.

이날 추천회에서 1,000만명이 넘는

팬을 보유한 자가온전관광 블로거 장지걸, 틱톡 음악인 수소소와 100만명이 넘는 팬을 보유한 인터넷 달인들이 현장을 찾아 연길관광 홍보에 열을 올렸다. 연길시와 항주시 문화관광부문은 문화관광 전략협력 기를 협의를 체결하고 두 지역의 여행사 대표가 협력과 관련된 기를 협의를 체결했다. 한편, 설명회 현장에서는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선출한 가무와 악기 연주가 펼쳐져 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상호 소통을 통한 추첨 부분에서 절강대학 도시학원의 대학생이 국내, 국외의 관광 체험 기회에 당첨되면서 현장 분위기가 고조에 달했다. 회의장 밖에는 레인과 대학생들이 감상하고 맛보도록 연길 관광기업에서 준비한 막걸리, 김치, 문화창의제품 등이 전시되어 호평을 받았다. / 연길뉴스넷

## 우리 나라 세계 '최고의 관광마을' 7개 신규 추가

11월 15일,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유엔 관광기구 집행위원회 제 122차 회의에서 2024년 '최고의 관광마을' 목록이 공포되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신청한 운남 아쯔커퉁, 복건 광양촌, 호남 십팔동촌, 사천 도평촌, 안후 소강촌, 절강 계두촌, 산둥 연둔각촌 등 7개 마을이 입선되어 입선 총수가 15개에 달했다.

이전에 선정된 우리 나라의 7개 마을은 지역, 문화 발전 모식에서 비교적 강한 대표성이 있는바 중국 향촌관광 발전 성과의 구조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지역적으로 동, 중, 서부에 걸치고 고원의 구릉, 평원의 복지와 연해의 섬이 있다. 문화유형에서 장강, 객가, 묘족, 하니족 등 여러가지 문화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중화명명의 다원화, 일체화 구도를 드러냈다. 발전 모식에서 중화명명의 우수한 실천을 전승하고 개혁진취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청산록수를 금산산으로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다. /인민넷